

## 벼랑끝 경영

우리말과 글은 배우기 쉽고 사용하기 편해 그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는 우리의 자랑거리 중 하나이다. 그런데 이렇게 우수한 우리말과 글이 외래어와 혼용되거나 아예 사라지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어 안타깝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쓰고 있는 '무대포'라는 말도 오리지널 일본어이다. 한문으로는 無鐵砲로 쓰고 일본인들은 '무뎃뽀'라고 읽는데 조총이 없다는 뜻으로 일본 최고의 기마군단을 자랑하던 다케다 가쓰요리가 오다의 조총부대에 전멸 당한 데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는데 조총도 없는 부대가 무모하게 전투를 벌인다는 의미로 '무대포'는 뜻없이 사는 막가자는 생활 방식으로 해석되고 있다.

요즘 인쇄인들은 인쇄사 경영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소연을 한다. 총매출에서 필요경비 등 이것저것 빼고 나면 이윤이라는 단순논리를 가지고는 기업경영을 하기 힘들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기는 하지만 적정한 원가계산은 아예 무시하는 등 별로 내키지 않는 표현이지만 '무대포'로 거래질서를 파괴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용지값에도 못미치는 가격으로 인쇄물을 들고 간 사장에게 그렇게



**강물이 오염이 심해져서 자정능력을 상실하게 되면 마실 수 없게 되듯이 덩핑이 만연되어 인쇄업계를 오염시킨다면 돌이킬 수 없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일이다.**

해서 어찌자는 것이냐고 물었더니 '그래도 조금은 남는다'는 억지주장에 쓴 웃음밖에 달리 돌려줄 것이 없었다.

얼마전에 있었던 한 전자입찰에서는 예정가격의 20%선으로 인쇄물을 가져간 사례도 있었는데 무슨 컴퓨터게임(?)으로 착각한 것도 아닐텐데 어안이 병병할 따름이다.

앞으로 점점 공개경쟁입찰이나 전자적방식에 의한 입찰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실정이고 보면 심각한 사태라고 아니할 수 없다. 어찌보면 갈데까지 가보자는 벼랑끝 경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다른 사람까지 끌어안고 벼랑에서 떨어지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덩핑이 당장 발등의 불을 끄는 것처럼 느껴질 지 모르나 결국은 고치기 힘든 중병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업계일각에서 덩핑방지를 위해 부찰제를 실시하든가 예정가격의 일정수준 이하의 수주를 금지시키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시장경제체계의 큰 틀에서 볼 때 결과를 낙관하기는 쉽지 않다. 시냇물이나 강물이 오염이 심해져서 自淨능력을 상실하게 되면 마시지도 못하고 농업용수도로도 사용할 수 없게 되듯이 덩핑이 만연되어 인쇄업계의 물을 심하게 오염시킨다면 돌이킬 수 없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일이다.

경기가 서서히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 인쇄업계에는 미풍도 불고 있지 않다. 조금만 마음으로 남지도 않는 일감확보에 나설 일이 아니라 이윤을 남기는 수주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 인쇄업이 그 성격상 쉽게 망하지 않는다는 미신(?)을 믿다가는 큰 코 다친다.

벼랑 끝에 매달려 기업을 경영하려면 차라리 背水陣을 치는게 좋다. 기업성장에 배수진을 쳤다는 말은 죽을 각오로 마지막 승부에 나서는 진지함과 각오가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오세익 · 편집주간〉